

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2026.9.1.(화)	보 도 자 료 담당: 정책위원회연락처: (02)6788-2606
--	---

〈민주당, 2027년 예산안 평가〉

- **대한민국의 대전환·대도약,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**
- **확장재정이 성장건인, 재정건전성 개선하는 재정선순환 시현**

- 정부는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보다 12.8% 증가한 820.9조원 규모의 “대체 불가 대한민국 대도약, 2027년 예산안”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하게 편성한 첫 예산안입니다.
-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을 “대한민국의 대전환·대도약,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”라고 평가합니다.
 - 대한민국 경제성장률(전년동기대비)이 2025년 1분기 0.2%, 2분기 0.7%였다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후 3분기 2.1%, 4분기 1.6%로 소폭 상승하였고, 2026년에는 1분기 3.8%, 2분기 3.7%에 이르고 있는 등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됩니다.
 - 내란정국 등으로 인한 2025년 경기침체, 2026년 중동전쟁 상황에서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과 국민주권정부의 적극재정 등에 힘입어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.
 -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건인하면서,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 - 중점투자 내용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, AI 총력 지원, 미래성장 엔진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예산 62조원보다 35% 증가한 84조원이 투자됩니다.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, 지방주도 성장, 소상공인·농어민, 민생안정 등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는 올해 예산 114조원에서 160조원으로 41% 증가합니다. 총지출 증가율 12.8%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.
 -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

□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,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.

-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·소득세를 중심으로 올해 본예산 390.2조원보다 194.2조원이나 증가한 584.4조원으로 예상됩니다.

-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,520조원이지만, 경제성장에 힘입어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51.6%보다 훨씬 낮아지는 48.3%가 됩니다.

* 국세수입 : ('26본예산) 390.2 → ('27안) 584.4조원

국가채무(GDP대비 비율) : ('26본예산) 1,413.8 (51.6%) → ('27안) 1,519.8조원 (48.3%)

□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7일에 기준금리를 2.75%에서 3.0%로 인상하였는데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서로 엇박자를 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잠재성장률을 반등하는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물가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고 있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

-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7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“재정정책이 경제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될 수 있다”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

-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이 흡수하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확대되어 있습니다. 금리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충격을 완충하고 있기에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□ 민주당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입니다.

2026. 9. 1.

더불어
민주당

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,

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